

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

안건 제2호 (보고)

기업지원-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

- AI·산업 전환기, 재정사업을 통한
청년·지방 일자리 확충·연계 강화 -

2026. 6. 9

관 계 부 처 합 동

기업지원-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(요약)

- AI·산업전환기, 재정사업을 통한 청년·지방 일자리 확충·연계 강화 -

- ◇ 청년 채용 급감, 지방 구인난 등 **일자리 양극화 대응** 및
시發 **‘고용없는 성장’** 반전을 위해 **‘채용 연계형 재정지원’** 전환 추진

1. 추진배경

① AI·산업전환기, ‘고용없는 성장’ 추세와 청년·지방 일자리 악순환

- 전체 고용률이 상향 추세임에 반해 청년 고용률은 하락 추세, 정책적 노력에도 첫 취업 장기화 및 쉬었음 청년 40만명 수준
 - 특히, 전통제조업 등 비수도권 주력산업 위기 등에 따라 지방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여건 악화 가속화
- AI 확산이 진행될수록 취약한 청년·지방 일자리 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 감안시, 향후 일자리 변동 대비 재정지원 방식 점검 필요

② 청년 눈높이에 맞는 민간 일자리 확충 유도가 필수

- 청년 고용은 ‘원하는 일자리 부족’, ‘노동시장 이동 사다리 단절’ 등에 따른 구조적 문제 → 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 촉진 중요
- 한편, 산업분야 지원은 대폭 확대 중이나, 사업성·매출·기술 중심 평가로 인해 일자리 창출은 기업성장 관점에서 낮은 우선순위
 - 또한, 산업전환 과정에서 **일자리 유지**(직무 재배치 등) 등을 위한 **재직자 훈련**도 긴급하나, 사업주 부담 등으로 **활성화**되지 못하는 측면
 - 중소·소상공인에 대한 **AI인력 지원 필요성**도 지속 제기되나, 청년 AI인재 **연계·채용 지원**은 미흡 + AI 활용역량 검증 수단도 미비

⇒ 청년·지방 일자리 관점에서 ‘고용 친화적 성장’이 될 수 있도록 **재정지원 사업**을 통한 **청년·지방 일자리 확충·연계 강화** 추진

- ①**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**, ②**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**, ③**AI인재와 취약분야 지원 연계** 등 과제 마련(‘27년 예산편성 연계)

[기업지원-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개요]

- (추진배경) 청년·지방 일자리 어려움 + AI 전환기 ‘고용없는 성장’ 심화
- (추진방향) ①민간 일자리 창출 + ②고용유지 지원 + ③AI인재 활용
 - ① 청년이 원하는 민간 일자리 채용이 확대되도록 재정지원방식 개선
 - ② 산업전환 필요기업 대상, 고용유지와 직무전환 훈련 활성화 지원
 - ③ 中企·소상공인 등 취약분야와 AI 훈련이수 청년 활동지원 접목

1.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청년·비수도권 일자리 창출 기업 우대

유형① (투자보조금 / 이차보전·용자) 대규모 기업 보조시 일자리 연계 강화	
개선방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청년·지방소재 인재 등 채용규모와 연동해 보조율 상향, 이차보전율·금리 우대 등 반영 ▶ 고용계획 대비 초과고용시 보상구조 도입·강화 	대상사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5극3특 성장엔진 보조 ▶ 지역투자촉진보조금 ▶ 유턴기업 투자보조 ▶ 유니콘브릿지 ▶ 외국인투자 현금지원
유형② (마일스톤-요건지정(우대)) 스케일업 등 후속 지원사업 우대	
개선방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채용성과 가점 부여로 단계·중간평가시 우대 ▶ 채용 우수기업에 he지원사업 우선권 부여 	대상사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AI 빅테크 육성사업 ▶ AX스프린트 ▶ 글로벌 팁스 ▶ SW고성장클럽 지원사업
유형③ (패키지 지원형) 채용확대 전제로 관련사업 패키지-원스톱 지원	
개선방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채용확대 전제로 사업 패키지화-원스톱 지원 	대상사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점프업 프로그램 ▶ 해외 건설시장 개척 지원

2. 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 산업전환 교육, 직무 재배치 지원

① 맞춤형 인재 육성	② 직무 재배치 지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산업 맞춤형 훈련을 통해 기업 현장 인력과 청년인재의 기술역량 제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노동자의 단축근무, 직무전환 교육, 컨설팅을 지원하여 고용유지 유도
추진방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^{가칭}고용위기 극복 패키지 도입 ▶ 노사 상생형 훈련·변화관리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산업맞춤형 시전환 훈련과정·특화센터 확대 ▶ 청년 시기술인력 육성 프로그램 확대

3. AI인재와 취약분야 지원 연계 청년인재의 AI 취약분야 연계-채용 지원

① AX 코칭 지원 및 일자리 이음 강화	② AX 취약분야 AI인재 채용 지원	③ AI역량 인증·관리 기반 조성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AX·DX 수요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 청년 AI인재 매칭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AX 취약 기업 대상 AI인재 채용시 인건비, 직무훈련 등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AI인재가 역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인증·관리체계 구축
추진방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중소기업 AI 청년코치 지원 ▶ 소상공인 청년 AX·DX 컨설턴트 지원 ▶ 협동조합 AI 전문인력 육성·현장배치 	추진방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중소중간기업 AI훈련 수료 청년 채용 지원 ▶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육성 지원 ▶ 지역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▶ 사회적 기업 AI 등 전문인력 채용 지원 	추진방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AI분야 플러스+ 국가자격 신설 ▶ 직무능력은행 제공정보 확대

2. 추진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

1.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	
✓ 시설·장비, 지방이전 투자,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 지원시, 청년·지방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형으로 지원방식 개선	
2. 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	3. AI인재와 취약분야 지원 연계
✓ 산업전환 대비, 고용 유지하면서 직무전환 훈련 원활화 지원	✓ AI 취약분야(중소기업·소상공인 등) 지원 위한 청년 AI인력 일자리 연계
※ '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입·실시	

① Good-Job Link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(14개 사업)

○ **(추진방향)** 재정사업 지원시,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혜택 강화

– 사업별 효과성 낮은 지원항목은 지출 구조조정하되, 지방·청년 일자리 창출시 우대·추가 지원 강화 방향으로 사업방식 개선

○ **(적용분야)** AI·전략산업 시설·장비 투자, 지역(초광역권) 기업이전 등 대규모 산업 보조·융자 사업 및 중소·중견기업 성장 지원분야

① 기업 지방이전, 5극3특 성장엔진 육성, 국내복귀·외투기업 투자 등 보조·융자 지원시, 청년·지방 일자리 확대기업 지원 강화

② 청년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중소·벤처·중견기업 대상, 해외진출-판로개척-R&D 등 패키지 집중 지원 및 후속사업 선정 우대

○ **(지원방안)** 고용성과에 따른 우대 구조가 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고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대상 조정, 점검·환류구조 마련 등 병행

① (대상) 인센티브 형태(일자리 창출기업에 추가혜택)로 운영하되, 사업 초기 중소·벤처기업 등은 제외, 기업 규모별 채용의무 차등 적용*

* (예시) 최소 신규 채용규모 차등, 채용요건 충족시 추가 인센티브 차등

② (점검·환류) 일자리 질적 측면 고려한 사후정산형 구조(과거 대비 순증 인력 확인, 현장점검 등) + 미이행시 인센티브 미지급, 후속지원 제한 등

【 주요 추진과제(사업 예시) 】

5극3특 성장엔진 보조금	AI 빅테크 육성사업	점프업 프로그램	미래 환경산업 육성용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의무고용요건 설정 • 추가고용 인센티브 반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단계 평가시 청년인력 채용 기점 부여우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다음단계 지원대상 선정시 고용실적 우대 → 패키지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우수 고용계획 기업 대상 금리 추가인하

② Good-Job Guard

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(4개 사업)

-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을 현장 수요에 맞춰 재정비 하고, 재직자·신규 노동자 대상 AI 특화 훈련 프로그램 강화
- AX·DX 과정에서 인력 감축없이 직무 재배치 등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자·기업 직업훈련 지원 패키지 구성

【 주요 추진과제(사업 예시) 】

고용위기 극복 패키지	노사 상생형 훈련 강화	산업맞춤형 AI전환 지원	청년 AI 기술인력 육성
· 단속근무 직무전환 재배치 교육 패키지 지원 도입	· 노사가 공동 참여해 훈련 개발 조직 컨설팅	· 산업계 주도 AI훈련, AI 공동훈련센터 확대	· AI캠퍼스, AI Worker 등 AI 특화훈련 확대

③ Good-Job Bridge

AI 인재와 취약분야 AX 지원 연계(9개 사업)

- AI의 전방위적 확산에 따라 AI 인재 수요 확대 및 AI 역량 인증 수요 증가 → 검증된 청년 AI 인재 대상 일자리 채용 연계 추진
 - 중소·소상공인 등 AI 취약부문에서 국비 지원 AI 인재를 파견·채용 등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당·인건비 지원 도입 검토
- AI 역량 인증·관리용 자격체계 신설 등 기반 조성도 병행

【 주요 추진과제(사업 예시) 】

중소 AI 청년코치 지원	소상공인 AX 컨설턴트 지원	중소·중견기업 AI 인재 채용 지원	시분야 국가자격 신설
· AX수요업체 - 청년코치 매칭·활동 지원	· 청년이 소상공인 사업장 방문해 AX 컨설팅	· 직업훈련 수료자 등 채용기업 인건비 지원	· 현장기술 - AI 접목하는 '시분야플라산' 자격 신설

3. 향후계획

- 재정 지원사업은 '27년부터 적용 추진(제도는 연내 개편) → 재정 지원 사업 세부사항은 정부예산안 편성 및 국회심의 과정 통해 최종 확정
- 도입 분야의 집행 및 고용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가 확산 검토

순 서

I. 추진 배경	1
II. 추진 방향	5
III.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...	7
IV. 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	12
V. AI인재와 취약분야 지원 연계	13
VI. 향후 일정	15

I. 추진 배경

- ◇ 청년 채용 급감, 지방 구인난 등 일자리 양극화 대응 및 AI發 ‘고용없는 성장’ 반전을 위해 ‘채용 연계형 재정지원’ 전환 추진
- ⇒ ①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, ②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, ③AI인재와 취약분야 지원 연계 등 과제 마련('27년 예산편성 연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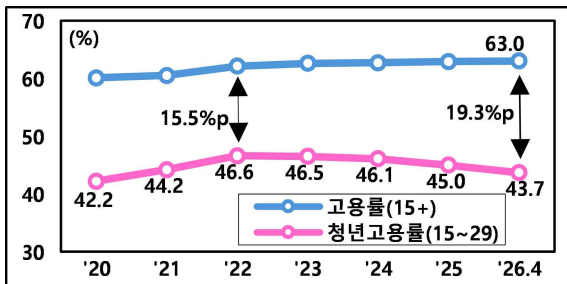
1. 고용 없는 성장 추세

- AI·산업전환기, ‘고용없는 성장’ 추세와 청년·지방 일자리 악순환
→ 향후 일자리 변동 대비 재정지원 방식 점검 필요

- 전체 고용률이 상향 추세임에 반해 청년 고용률 지속 하락, 일반-청년 고용률 격차 확대 등 세대간 일자리 격차 심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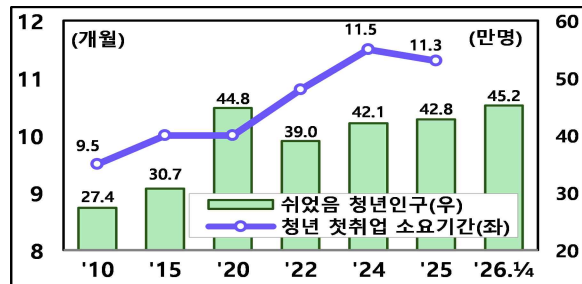
* 20~30대 실업·쉬었음·취업준비 인구 171만명 / 코로나 이후 청년고용률 최저 등
↳ 20~30대 미취업자(26.1/4, 만명): (실업자)44.5 (쉬었음)72.4 (취준생)53.6 <2030 인구의 14%>

일반·청년 고용률 격차



* 출처 : 데이터처('26)

쉬었음 청년인구 및 첫취업 소요기간



* 출처 : 데이터처('26)

- AI 시대, AI전환 등에 따른 생산성 제고 및 경제·산업 구조 재편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나, 일자리 양극화 우려는 오히려 심화
- 청년 고용 감소가 AI 고노출업종, AI 도입기업에서 집중된다는 분석 등 고려시 향후 청년층 중심 일자리 충격 가시화 가능성

AI 전환의 청년 일자리 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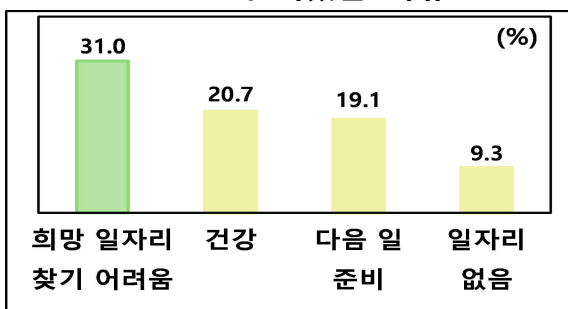
- ▶ (OECD, '25) AI 확대는 전일제·정규직 고용에 악영향, 고속권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
→ 향후 청년 고용 기회 감소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일자리 양극화 심화 우려
- ▶ (한은, '25) '22.7월~'25.7월 감소한 청년 일자리 21.1만개 중 20.8만개가 AI 고노출업종, AI는 암묵지 지닌 시니어층에는 보완적, 역량이 적어 정형화된 업무 담당하는 청년층 쉽게 대체
- ▶ (노동연, '26) 중·고령층은 AI 도입-미도입기업간 고용 추이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, 청년층은 AI 도입기업에서 '23년 기점 고용 추이가 정체상태에 진입하는 차별적 패턴 시현

2. 민간의 좋은 일자리 확충 유도 필요

□ 청년 일자리는 공공 일자리 확대와 함께 민간 일자리 채용 확대 필수
 → ‘고용 친화적 성장’이 될 수 있도록 **일자리 늘리는 기업 지원 강화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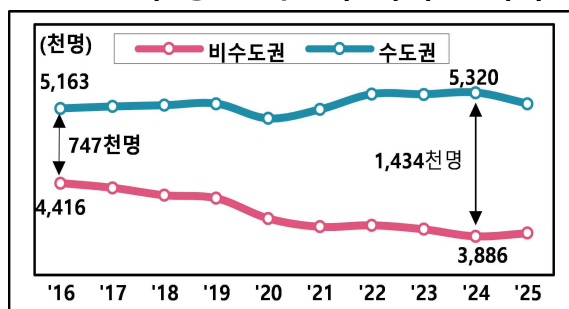
- 청년 고용은 단순 일자리 수 문제가 아닌 ‘원하는 일자리 부족’, ‘노동시장 상향 이동성 제약(첫 일자리 중요)’ 등에 따른 구조적 문제
 - 특히, 전통제조업 등 비수도권 주력산업 위기 등에 따라 지방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 여건 악화 가속화

20~30대 쉬었음 사유



* 출처 : 데이터처('25)

15~39세 청년 취업자 지역간 격차



* 출처 : 데이터처('25)

-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 ‘좋은 일자리’가 유지·확충되도록 유도하는 **보편적·지속가능한 지원 구조 강화 필요**
 - 현재 산업 지원은 기술성·매출·투자 중심으로 평가되어, 대상기업 관점에서 채용·일자리에 대한 고려를 유도하지 못하는 한계
 - 사업재편시 일자리 유지(기존 노동자 직무 재배치 등) 등을 위한 재직자 훈련도 긴요하나, 사업주 부담*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

* AI교육 애로사항 : ‘훈련시간 확보 어려움’, ‘비용부담’, ‘AI 관련 정보 부족’順(노동부, '25)

현장·전문가 목소리

- ▶ (노동연 '24) 지역 신산업기업투자 지원시 투자산업기업의 필요인력규모, 숙련인력 비중 등 정보에 기반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관점 재정립 필요
- ▶ (산업연 '23) 산업별로 성장-고용간 관계가 상이하며, 낙수효과 저하 등 성장의 결실이 충분히 퍼지지 못한다는 인식이 늘어날수록 성장 과정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·유지 대책 필요
- ▶ (KDI 등) “다각적인 기업 지원을 통해 신산업 육성을 촉진하면서도 민간, 기업 주도로 좋은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의 통합설계가 필요”

3. AI 취약분야 양극화 대응 요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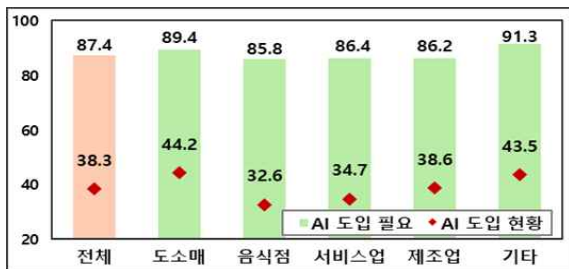
□ 중소기업·소상공인 등 디지털·AI 취약분야 경쟁력 더욱 약화 → 청년 AI훈련 사업 등 연계해 중·소상공인 AX 지원 및 채용 연계

○ 中企·소상공인의 낮은 디지털·AI 역량은 대·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심화*하고, 취약 분야 비용 부담 요인으로 작용

*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증대 효과는 모든 기업에 보편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, 대기업과 업력이 긴 기업에서 두드러지는 경향(한은, '2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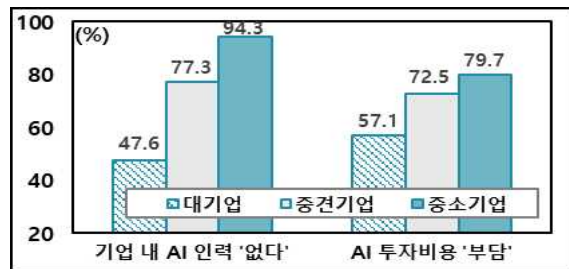
-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·소상공인의 AI 전환 수요는 높으나, AI인력 부족, 투자비용 부담 등에 따라 실제 AI 전환에 제약

소상공인 AI 도입 수요 및 도입률



* 출처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'25)

제조기업 AI전환 실태조사



* 출처 : 대한상의('25)

○ 중·소상공인에 대한 AI인력 지원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도, AI 취약분야에 청년 AI인재를 연계·채용 지원하는 정책은 미흡

- AI인재 육성 등 다양한 직업훈련 사업*이 운영되고 있으나, 육성 이후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부족

* K-디지털 트레이닝 AI 캠퍼스 과정, 폴리텍 AI 하이테크 과정 등

- 현장기술과 연계한 AI 활용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수단이 미비해 AI 인력 채용 과정에서의 애로도 지속 제기

현장·전문가 목소리

- ▶ “정부가 취약분야 대상 AX·DX 지원시 인프라 지원(하드웨어)에 그치지 않고 관련 인력 확보까지 병행하여 지원해야 현장에서 실제 디지털·AI 도입·활용이 가능”
- ▶ “AI인재 확보를 위해 기업이 청년의 AI 활용능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 조성 필요”

[주요국 대응사례 및 효과]

- 미국, 영국 등 주요국은 산업지원 사업에 채용확대계획 약정 혹은 채용 성과를 연계하여 차등 지원하는 구조 도입 중
 - 고용 창출 관점을 평가·고려하는 조건이 부가된 사업의 고용 효과는 통상 10억원당 31.9명~37.6명 수준*
 - * (고려사항) ①보조금은 유무형 자산 투자와 통합 지원, ②지역 내 직간접 고용효과 동시 분석要 ③보조금 규모범위 등과 결합해 효과 발생 → 고용조건에 따른 순고용효과 분석에는 제약
 - * (참고) R&D 사업의 순고용효과는 10억원당 1.36명(창업기업지원), 3.83명(사업화 지원) 추정(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, '25년)
 - 자본집약적 산업 대상 보조금의 고용효과는 상대적 저조했으나, 한편으로 경쟁력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
- 산업전환 측면에서는 ①고용 유지하면서 필수인재 신규채용·직무재배치 지원, ②중소기업 대상 'AX·DX 전환'-'전문인력 채용' 연계 등 지원

주요국 정책 사례 및 고용창출 효과

구분	국가	정책 사례 및 고용창출 효과
일자리 창출형 재정 지원	미국	▶ (CHIPS Incentive Program) 반도체산업 기반 강화 목적의 보조금 제공시 일자리 확충, 근로여건 개선 등을 수혜요건으로 규정 ⇒ '21~'25년간 최소 3만개 일자리 창출, 정부지원 1억\$당 최소 56명 고용(보조금 수혜-비수혜지역간 비교분석)
	영국	▶ (지역선별보조금(RSA)) 낙후 지역에 기업 투자시 일자리 창출 및 기존 고용 보호를 전제로 보조금 지급 ⇒ 정부지원 10억원 당 최소 32.6명 고용창출('00~'04 '10년 \$ 기준)
	독일	▶ (지역 경제구조 개선 공동과제(GRW)) 낙후지역으로 기업 이동을 통해 정규직 고용 인원 최소 15% 이상 증가 시 보조금 지급 ⇒ 정부지원 10억원 당 최소 37.6명 고용창출('91~'17, '10년 \$ 기준) ▶ (Sustainability-Linked Loan) 대규모 시설 투자에 정책자금 지원시, 고용의 지속가능성 등을 포함한 성과지표와 금리구조 연계
산업 전환시 일자리 지원	일본	▶ (사업구조개편지원) AI·디지털 전환 포함한 사업 재편 과정에서 고용 유지하면서 필요인재를 신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 지원
	싱가포르	▶ (Career Conversion Program) AI·자동화 도입 등 사업전환에 따른 인력감축 방지 위해 해고 대신 직무 재배치 선택시 훈련비 등 지원
AI인재 활용 연계	캐나다	▶ (Canada Digital Adoption Program) 중소기업의 DX계획에 대한 자문비 지원, 계획이행자금 무이자 대출, 청년 채용 임금 보조
	영국	▶ (Knowledge Transfer Partnerships) AI·디지털 등 전문 연구원을 관련분야 프로젝트 수행 중소기업에 파견·인건비 지원

II. 추진 방향

1.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

- ✓ 시설·장비, 지방이전 투자,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 지원시, 청년·지방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형으로 지원방식 개선

2. 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

- ✓ 산업전환 대비, 고용 유지하면서 직무전환 훈련 원활화 지원

3. AI인재와 취약분야 지원 연계

- ✓ AI 취약분야(중소기업·소상공인 등) 지원 위한 청년 AI인력 일자리 연계

※ '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입·실시

① Good-Job Link **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**

- **(추진방향)** 재정사업 지원시,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혜택 강화

- 사업별 효과성 낮은 지원항목은 지출 구조조정하되, 지방·청년 일자리 창출시 우대·추가 지원 강화 방향으로 사업방식 개선

- **(적용분야)** AI·전략산업 시설·장비 투자, 지역(초광역권) 기업이전 등 대규모 산업 보조·융자 사업 및 중소·중견기업 성장 지원분야

- ① 기업 지방이전, 5극3특 성장엔진 육성, 국내복귀·외투기업 투자 등 보조·융자 지원시, 청년·지방 일자리 확대기업 지원 강화

- ② 청년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중소·벤처·중견기업 대상, 해외진출-판로개척-R&D 등 패키지 집중 지원 및 후속사업 선정 우대

- **(지원방안)** 고용성과에 따른 우대 구조가 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고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대상 조정, 점검·환류구조 마련 등 병행

- ① (대상) 인센티브 형태(일자리 창출기업에 추가혜택)로 운영하되, 사업 초기 중소·벤처기업 등은 제외, 기업 규모별 채용의무 차등 적용*

* (예시) 최소 신규 채용규모 차등, 채용요건 충족시 추가 인센티브 차등

- ② (점검·환류) 일자리 질적 측면 고려한 사후정산형 구조(과거 대비 순증 인력 확인, 현장점검 등) + 미이행시 인센티브 미지급, 후속지원 제한 등

공통 적용사항

※ **사업 특수성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정·탄력 적용**

- ① 사업별 효과성 낮은 지원항목은 지출 구조조정하되,
청년·지방 일자리 창출시 우대·추가 지원 강화 방향으로 사업방식 개선
- ② 고용계획·실적과 연계한 지원구조 설계
 - 인센티브 부분은 사업기간 일정기간 경과후 지급 원칙(사후정산형)
 - 고용 순증인력 인정, 안정적 일자리 확보 기준(예: 상시고용인력)
- ③ 단계별 점검·환류체계 구성
 - ① **확약(필요시)** : 기업-부처간 사업 시작단계에서 신규(의무) 채용규모 확약
 - ② **증빙** : 객관적 자료(고용보험 납부자료 등)를 통해 채용성과 증빙
 - ③ **환류(Feedback)** : 계획대비 고용 달성시에만 인센티브 지급,
부정수급시 환수구조 마련·여타 정부지원 참여 제한 명시

② Good-Job Guard **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**

-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을 현장 수요에 맞춰 재정비 하고, 재직자·신규 노동자 대상 AI 특화 훈련 프로그램 강화
- AX·DX 과정에서 인력 감축없이 직무 재배치 등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자·기업 직업훈련 지원 패키지 구성

③ Good-Job Bridge **AI 인재와 취약분야 AX 지원 연계**

- AI의 전방위적 확산에 따라 AI 인재 수요 확대 및 AI 역량 인증 수요 증가 → 검증된 청년 AI 인재 대상 일자리 직접 연계 추진
 - 중소·소상공인 등 AI 취약부문에서 국비 지원 AI 인재를 파견·채용 등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당·인건비 지원 도입 검토
- 현장기술 역량과 실무에 활용 가능한 AI 역량을 인증·관리할 수 있도록 자격체계 신설, 경력관리체계 강화 등 기반 조성

Ⅲ.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

◇ 청년, 지역인재 등 채용 우수기업일수록 산업분야 지원시(시설투자·지방이전·스케일업·R&D 등) 인센티브 설계 → 재정 마중물 역할 강화

1 채용 우대 국고보조형

□ 시설·장비, 투자, 지방이전 등 대규모 기업 보조시 청년·지역인재 등 채용(신규·추가) 계획(실적)과 연계해 추가 지원

구분	기존	개선방향
청년·지방우대	▶ 고용인원(양) 중심 성과 산정	▶ 청년, 지역인재, 이공계 등 좋은 일자리 창출시 추가 우대
초과달성보너스	▶ 고용계획 달성 이후 초과고용 유인 미흡	▶ 계획대비 초과고용시 추가 보조금 지급 신설·강화 ▶ 고용계획 달성시 성공환원금 경감
지원수준확대	▶ 기존 고용 인센티브 수준·효과 제한적	▶ 신규 채용 규모 비례하여 보조율, 한도 등 지원 상향

< 대상사업 예시 >

① (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*) 보조금 수혜 기업의 지방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①의무고용요건 설정, ②추가고용 인센티브 반영

* 5극3특 거점에 앵커기업(대중견기업)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신설 추진중

- ①보조금 지원구간별로 의무고용요건을 설정하고, 일정 기준 이상 고용목표 제시시 가점구조 도입 검토(청년·지역인재 채용시 추가 우대)
- ②계획 대비 초과고용시 청년·지역인재 고용 수준 연동해 추가 보조

② (유턴기업 투자보조*) 국내복귀기업이 추가고용을 적극 고려하도록 ①청년·지역인재 고용시 우대구조 도입, ②사후 고용인센티브 신설

* 공급망 핵심산업 등 국내복귀기업 대상 해외사업장 구조조정, 국내사업장 투자운영 지원

- ①청년·지역인재 고용수준을 고려해 보조비율 우대 추진
- ②계획 대비 추가 신규고용시 보조금 추가정산 구조 도입(예: 초과인원 10명당 +1%) + 청년·지역인재 추가 고용시 지원비율 가산

③ **(외국인투자 현금지원*)** 비수도권 소재 외투기업이 ①**계획 대비 초과 고용시 추가인센티브** 및 ②**청년·지역인재 채용 확대시 우대구조 검토**

* 지원한도(FDI 대비 40~50%) 내 외투기업 투자금액 지원(투자자와 협상 거쳐 규모·용도 결정)
↳ 토지·건물 매입 및 임대, 자본재 구입, 기반시설 설치, 고용·교육·훈련보조금 등 지원

- ①비수도권 투자기업 대상 투자금 협의시 고용계획 및 추가고용 인센티브 구조를 **확약**하고, 투자기간 중 **이행실적** 평가해 추가 지원
- ②비수도권에서 일정비율(예 : 80%) 이상 **청년, 지역인재, 이공계 석박사급** 고용시 **국가 부담비율 상향 검토**(現 국비 50%)

④ **(지역투자촉진보조금*)** 기업 지방투자시 고용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구간·수준 개편** 및 청년·지역인재 고용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신설

* 지방 이전, 신·증설 투자 등 기업 지방투자시 투자액의 4~50%(입지·설비보조금) 지원
↳ 필수고용의무 설정 + 신규고용인센티브 + 추가고용인센티브 부여중

** (現) 추가고용 인센티브 5개 구간 → (개선 例) 40명 이상 구간 세분화 등

< 주요 보조금 개편방향 > ※ [] : 현행 / [] : 개선방향

구분	신규고용 인센티브 강화	추가고용 인센티브 신설								
5극3특 특별보조금	▶ 대상선정시 채용수준별 우대 * 보조금 성격 감안, 신규고용 의무수준 설정	▶ 청년·지역인재 고용 우대								
유턴기업 투자보조	▶ 신규상시고용인원수 따라 보조금 가감 * 예: 신규고용 80명 이상시 1~6%p (기산기업규모별 차등)									
외국인투자 현금지원	▶ 최대한도 내 고용보조금 지원									
지역투자 촉진보조금	▶ 최소기준 초과 고용시 설비지원비율 가산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신규고용(명)</th> <th>추가지원비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5~20</td> <td>0~2%p</td> </tr> <tr> <td>...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80~</td> <td>3~10%p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small>기업 규모별 차등</small>		신규고용(명)	추가지원비율	15~20	0~2%p	...		80~	3~10%p
신규고용(명)	추가지원비율									
15~20	0~2%p									
...										
80~	3~10%p									
		▶ 초과고용 창출시 보조금 추가정산·지급								
		▶ 청년·지역인재 고용 우대								
		▶ 계획 대비 초과 고용시 설비 추가 보조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초과 고용(명)</th> <th>추가지원비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5~9</td> <td>1%</td> </tr> <tr> <td>...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0~</td> <td>5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초과 고용(명)	추가지원비율	5~9	1%	...		40~	5%
초과 고용(명)	추가지원비율									
5~9	1%									
...										
40~	5%									
		▶ 구간 세분화, 상한 확대								

⑤ **(유니콘브릿지*)** 청년, 지역인재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 2차년도 사업 성공(200억원 추가 유치)시 **성공 환원금****(기술료 성격) 부담 경감

* 50억원 이상 투자유치한 잠재 유니콘기업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등 스케일업 지원
↳ (1차년도) 사업화 자금 6억원 지원 / (2차년도) 100억원 추가유치시 10억원 추가 지원

** (현행) 2차년도 종료후 5년간 매년 전년 매출액의 0.5% 반납, 총액 최대5억원

2

채용성과 마일스톤형

- 스케일업 등 **후속 지원사업 대상 선정시 채용실적(청년, 지역인재 등)이 높은 기업일 경우, 우선지원요건 혹은 기본요건으로 설정·우대**

구분	기준	개선방향
선정시 가점	▶ 계속지원 혹은 단계평가시 고용지표 반영 제한적	▶ 채용 우수기업이 단계·중간평가시 우대 받도록 가점 구조 도입
우선권 부여	▶ 고용성과와 他사업 간 연계 미흡	▶ 채용 우수기업에 대해 他지원사업 우선권 부여

< 대상사업 예시 >

- ① **(AI 빅테크 육성사업*)** AI·AX 공공기술 사업화 기업 대상 R&BD 단계별 지원 과정에서 **후속단계 대상과제 선별시 고용창출 성과 반영**

* 연구개발특구 내 AI·AX 공공기술 사업화 기업을 선별해 최대 3년간 단계별(1기술→2제품→3시장) R&BD 집중 지원 → 단계별 경쟁을 통해 우수과제 선별(50% 이내)·후속지원

- 단계 평가시 계획 대비 AI 청년인력 초과채용시 가점 부여 → 다음단계 대상사업 선정시 우대

- ② **(글로벌 팁스(사업화*))** 글로벌 팁스 대상 선정시 팁스 등 이전 단계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**일자리 창출 성과가 고려되도록 평가 구조 설계**

* 해외 VC 등으로부터 30만불 이상 투자 유치&해외법인 설립 완료 또는 희망하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대상 해외진출자금(3년간 최대 6억원) 및 현지진출 프로그램 지원

- 글로벌팁스 대상 선정시 “**팁스성공기업 중 고용지표 달성기업** (신규고용 15명 이상)” 관련 **가점 항목 신설**(’26.3월~)

- ③ **(AX스프린트*(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))** 중소 제조현장에서의 AI 전환 과정에서 **고용창출 유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용성과를 후속지원과 연계**

* 중소 제조현장 AX제품 보급·확산 위해 AI모델 개발실증, 인프라 구축 등 패키지 지원

- 2년차 과제 대상 AI 전문인력 등 **채용 우수과제 선별해 추가 후속지원***

* 마케팅·특허·인증 비용 보조, 글로벌 전시회·투자설명회 참가지원 등

④ (SW고성장클럽 지원사업*) AI·SW기업 성장 프로그램 관련 2년차 지원시 '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' 구조 도입

* AI·SW산업 발전을 위해 AI·SW기업이 직접 설계한 자율과제 이행자금(총사업비 1~5억원) 등 성장 프로그램 지원(최대 2년간)

- ① 고용창출(질적측면 고려) 우수기업* 대상 최초 협약지원금 대비 추가보조, ② 해외 마케팅 등 간접지원사항 우선권 부여

* (예) 채용실적이 참여기업 중 상위 20%이면서 신규 상시고용 인원수가 최근 5년간 참여기업 평균 이상인 고용창출기업, 청년 비중 따라 차등지원 병행

3 채용 우수기업 패키지 지원형

채용계획을 충실히 이행한 중소·중견기업에 성장 패키지 원스톱 지원

구분	기존	개선방향
패키지 지원	▶ 채용 연계 고려없이 사업별로 매출 사업성 등 고려해 분절적 지원	▶ 채용 확대 전제로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업에 스케일업 등 패키지 지원

< 대상사업 예시 >

① (점프업 프로그램*) 중견기업 도약 종합지원을 단계별 지원형태로 개편
→ 단계별 후속지원 평가시 비수도권 고용 우대, 우수기업 추가 지원

* 업력 7년 이상 중기업 대상 3년간 신사업시장 진출 등 종합 지원(25~29, 총500개사)

- ① 성장단계별(소→중→중견기업) 맞춤형 집중 성장 패키지 형태로 개편
→ 단계별 우수기업은 다음 단계에서 이어서 지원하도록 '마일스톤 트랙'을 추진하고 단계별 평가시 청년, 지역인재 고용실적 우대
- ② 사업 기간 중 추가 고용실적 등을 주요 우대사항으로 설계한 성과지표를 활용해 차년도 지원 내용 차등

② (해외건설시장 개척 지원*) 중소~대기업의 해외건설 시장 진출 패키지 지원*시 고용 유도형 인센티브 반영 및 대상업종 확대

* ①수주활동지원(현지조사 등) 최대 1억원 ②기타지원사업(발주처 협력, 컨설팅 등) 최대 3억원

- ① 청년, 비수도권 신규채용 실적에 따라 지원금액 상향 및 보조율 우대 구조 도입*, ② 콘테크** 기업 지원사업 신설

* (예) 청년 인력 채용시 해외 실증·인증 비용 +10% 추가 지원

** 건설-정보통신기술 융합해 설계시공유지관리 생산성안전성을 지원하는 건설기술 기반기업

4

용자·이차보전 추가지원형

채용목표 연동해 용자·이차보전시 금리 조건 우대구조 도입

구분	기존	개선방향
조건 우대	▶ 채용실적과 연계된 우대금리·이차보전 가산 체계 부족	▶ 채용목표 달성·채용규모 연동해 이차보전을 상향, 우대금리 추가 인하

< 대상사업 예시 >

① (친환경차 전환촉진 이차보전*) 친환경차 부품업체 자금 대출시 신규채용요건 달성에 따라 이차보전 추가 지원

* 친환경차 부품업체의 시설투자·M&A·연구개발 자금 대출시 금리 일부 지원 (이차보전을 : 중소 2.0%p, 중견 1.5%p)

○ 기업 심사과정에서 고용창출 계획 작성 → 신규채용요건 달성시 이차보전 추가 지원* 및 미이행시 회수(매년 이행점검)

* ①비수도권, 청년 고용 여부, ②분야·기업 규모별에 따른 기준 차등 적용

② (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용자*) 사업비당 신규채용 목표 달성시 국가첨단전략산업 중소·중견기업 R&D 자금 용자 금리 추가 인하**

* (규모) 기업당 최대 50억원 / (금리) 공자기금 용자계정 신규대출금리 - 2.0%p(최저 1.3%) (대상분야)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이차전지, 첨단바이오, 로봇, 방산

** 과제 평가시 기업이 채용계획 제출 → 목표 달성 확인 이후 금리 인하

○ 연구개발 신규인력은 ①비수도권 일자리 혹은 청년 채용, ②과제기간(2년) 내 채용 및 채용 후 1년이상 근무 유지(일자리 질 담보)를 필수요건으로 설정

③ (미래환경산업 육성 용자*) 환경산업 투자 설계단계부터 신규채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신규채용 목표수준이 높은 기업 대상 금리 추가인하

* 청정대기, 자원순환 등 환경산업 기업의 녹색설비 투자 등 필요자금 장기저리 용자 (사업자당 지원한도 : 성장기반자금 10억원, 시설설치자금 100억원)

○ 용자접수시 우수기준* 이상 고용계획 제출기업에 대해 추가 금리 인하 및 미이행시 지원금 회수

* 대상기업 중 신규채용 상위 25% 수준 설정(매년 기준 조정), 비수도권 채용시 우대

IV. 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

◇ AX 중소기업, 사업전환 기업 등 대상으로, **사업전환 교육 및 직무 재배치 지원**을 통해 **고용 유지 뒷받침**

1] 가칭 고용위기 극복 패키지 마련

- 고용(산업)위기 선제대응지역 등의 주력산업 협력사, 사업전환기업 등 대상 단축근무-직무전환-재배치 교육 패키지 지원 도입

* (예)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(버팀이음 프로젝트) 내 '단축근무(훈련수당 강화 또는 임금감소분 보강 등 병행) + 직무전환 교육 패키지 지원 유형'을 상설화해 포함

2] 노사 상생형 훈련 및 변화관리 지원

- AX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원활한 직무 훈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'노사 상생형' 산업전환 훈련 강화

-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에서 노사 협력 프로그램* 운영시 성과 평가 가점 부여 → 훈련센터 운영 인센티브와 연계

* 예 : 노사가 공동 참여해 ①AX-DX 직무역량 개발, ②조직업무체계 개편 컨설팅 등 병행

3] 산업맞춤형 AI 전환 훈련과정 및 특화센터 확대

- 초산업 영역에서의 현장 중심형 AI 접목·확산을 위해 산업맞춤형 AI 교육·훈련 설계사업 확대 추진

- 산업계 주도* AI 활용 수요 분석 토대로 현장형 훈련 프로그램 마련

* (現) 전체 21개 ISC(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) 중 '26년 6개 ISC에서 시범사업 추진 중

- AI 격차 완화 및 대기업 인프라 공동 활용을 위해 대기업 주도 중소기업 대상 AI 특화 공동훈련센터* 확대('26 20개 내외)

* 대기업 등을 거점 공동훈련센터로 활용, 중소기업 기반 문제해결형 훈련 AX 솔루션 등 지원

4] 청년 AI 기술인력 육성 프로그램 확대

- 청년 AI 기술인력을 적시 육성할 수 있도록 AI 캠퍼스*(K-디지털 트레이닝), AI Worker**(산업구조변화대응훈련) 등 AI 특화훈련 지속 확대

* 현장 수요 높은 AI 엔지니어, AI 앱 개발자 등 실무형 청년 전문인력 양성('26년 年1만명)

** 전문분야에서 AI 도구를 능숙하게 활용하여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인재 육성사업 (전국 15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91개 기관의 125개 과정 선정 운영중)

V. AI인재와 취약분야 지원 연계

- ◇ **정부지원 AI훈련 수료인력**(^{'26년기준}2.7만명 규모*) 등 **청년 AI인재를 중소기업·소상공인 AX 지원사업과 연계 및 채용 지원사업 신설·강화**

* [훈련범위] K-디지털 트레이닝(KDT) AI 캠퍼스 수료자, 폴리텍 AI 하이테크 과정 수료자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수료자 등(초급과정 제외)

- ◇ **AI 분야 플러스 국가자격 신설 등 AI 역량 인증기반 조성**

1 AX 코칭 지원 및 일자리 이음 강화

① 중소기업 AI 청년코치 지원 신설

- **청년 AI훈련 수료자***를 ‘중소기업 AI 훈련확산센터**’ 사업과 결합해 AI 전환이 필요한 업체 등 대상 AX 코치 활동에 지원

* K-디지털 트레이닝의 AI 캠퍼스과정(약 900시간, 5개월 장기훈련) 수료생 등

** AI분야 퇴직자 등이 수요기업 현장에서 AX 컨설팅·기술지원 → 활동수당 지급('26~)

- 기존 AX 코칭을 하는 **시니어 전문가인력공단 담당자와 매칭·협업**해 현장 문제 해결형 훈련 설계·수행 등 **중기 AX 전환 지원**(청년코치 활동수당 지원 검토)
- 중소기업 AI 현장별 **청년 코치인력의 활동 매칭이 기업의 자발적 채용으로 직접 연계**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유도

② 소상공인 대상 청년 AX·DX 컨설턴트 지원 신설

- AI 직업훈련 등 이수한 **AI 인재가 청년 컨설턴트**로서 **소상공인 사업장** 방문해 관련 애로 진단·컨설팅 지원

* 정부지원 AI훈련 수료인력 대상으로 소상공인 AX·DX 컨설팅 사전교육 제공 (중기부(소상공인진흥공단)-노동부(한국기술교육대) 사전교육 공동 기획·추진)

- **전통시장·상점가,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참여기업 등 연계**해 청년이 현장에서 **소상공인 지원**토록 설계(비수도권 수당 우대)

③ 협동조합 AI 전문인력 육성 및 현장배치 지원

- 협동조합의 AI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청년 코디네이터 육성* 및 수요를 감안하여 현장 內 전문인력 배치·지원

* 대학, 연구소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

2 AX 취약분야 AI 인재 채용 지원

① 중소·중견기업 대상 AI 직업훈련 수료 청년 채용 지원 신설

- 직업훈련과 청년 채용이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‘정부지원 직업훈련 수료자를 채용한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’ 시범 도입 검토

② 현장중심형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육성 확대

- 중소기업의 AX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스마트 제조기업에 인력매칭 지원 확대(²⁶600명)
 - 스마트제조 현장에 필요한 실무교육(1개월, 훈련수당 지급) → 기업매칭 → 현장교육·문제해결형 직무훈련 활동 지원(3개월, 인턴수당 지원)

③ 지역 성장기업 중심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확대

- ^{가칭}新성장 혁신 기업(新安보, K-소비재 등), 지역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 집중 지원 위해 중소기업 연구인력 채용지원* 개편 + 지원규모 확대(²⁶800명)

* (지원기업)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
(지원내용) 만39세 이하 청년인력 대상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% 이내 지원

④ 사회적기업 AI 등 전문인력 채용 지원 신설

- 사회적기업의 AX 촉진 및 경영혁신을 위해 AI 기반 영업·마케팅, 경영관리 등 전문인력* 신규 채용시 인건비 지원 신설

* AI 관련 경력보유자, AI 직업훈련 수료자, AI 관련 자격 취득자 등 검토

① AI 분야 플러스+ 국가자격 신설

- 현장기술에 AI를 융합할 수 있도록 기존 국가기술자격에 **특화 AI 직무훈련을 접목하는 ‘AI 분야 플러스+ 자격*’ 신설**(‘27~)

* (現) AI 역량 관련 직접적인 국가자격은 없으며, 민간자격증 중심 자격체계 운영중
(改) 공신력있는 AI 인재 검증 측면에서 국가자격 차원 AI 역량 인증체계 마련

- 기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**관련 AI 직무훈련 후 평가통과시 이를 자격증에 표시하는 형태 추진**(‘플러스+자격’ 시범사업 일환)
- ‘26년 중 산업수요 발굴을 거쳐 **적용분야 도출 및 맞춤형 AI 특화훈련 개발** → **종목별 ‘AI 분야 플러스+ 자격’ 도입 추진**

*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을 통한 ‘플러스+ 자격 제도’ 법제화 병행(‘26.下)

② 직무능력은행 제공 정보 확대

- 산업전환기 채용·직무 이동 판단의 필수요건인 개인의 평생 경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**직무능력은행*에 개인경력정보 추가 연계****

* 다양한 직무능력(자격·교육·훈련·경력 등)을 저축·통합 관리하고, 인정서를 발급받아 취업 등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(‘23.9월~)

** (現) 국가기술자격, 훈련이력, 고용보험 이력 등 자격, 교육, 훈련, 경력정보 18종 탑재

VI. 향후 일정

- ①재정 지원사업은 ‘27년부터 적용 추진,
②제도개선 과제는 관련지침 수정 등 ‘26년 내 제도 개편 병행
- 사업규모, 형태 등 **재정 지원사업 세부사항은 ‘27년 정부예산안 편성 및 국회심의 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**
- 도입 분야의 집행 및 고용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**추가 분야 확산 검토**(분야별 효과 분석 등 심층평가 추진)

참 고

과제별 부처 담당자

과 제 명		부 처 명	담 당 과 장	담 당 자
1.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				
채용내보조형	①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	지역경제총괄과	이재석 과장 044-203-4430	이배화 사무관 bhbk@korea.kr
	② 국내복귀(유턴)기업 투자보조	해외투자과	이보라 과장 044-203-4090	이정은 주무관 h2ma@korea.kr
	③ 외국인투자 현금지원	사업부 투자유치과	김정예 과장 044-203-4080	박충식 사무관 park0124@korea.kr
	④ 지역투자촉진보조금	지역경제진흥과	임승복 과장 044-203-4420	소명희 사무관 smhee@korea.kr
	⑤ 유니콘브릿지	중기부 신산업기술창업과	정연호 과장 044-204-7640	정익채 사무관 doch3001@korea.kr
채용내보조형	① AI 빅테크 육성사업(연구개발특구육성)	과기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	최영실 과장 044-202-4740	최은석 사무관 gits@korea.kr
	② 글로벌 틱스(사업화)	중기부 신산업기술창업과	정연호 과장 044-204-7640	지흥진 사무관 jeeh@korea.kr
	③ AX스프린트(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)	중기부 제조혁신과	김민수 과장 044-204-7260	기정희 서기관 jhkee@korea.kr
	④ SW고성장클럽 지원사업(SW산업기반확충)	과기부 소프트웨어산업과	권오미 과장 044-202-6330	박정민 사무관 jmpark12@korea.kr
채용내보조형	① 점프업(Jump-Up) 프로그램	중기부 기업구조개선과	백원희 과장 044-204-7480	최호철 주무관 choh12@korea.kr
	② 해외 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 패키지	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	이혜선 과장 044-201-3516	김덕희 사무관 nedved03@korea.kr
유자·이차보전 지원형	① 친환경차 전환촉진을 위한 이차보전	사업부 자동차과	임채욱 과장 044-203-4320	이충렬 사무관 ache11@korea.kr
	②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용자	사업부 산업기술시장과	장미연 과장 044-203-4030	조동후 사무관 mprior@korea.kr
	③ 미래 환경산업 육성 용자	기후부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	임호수 과장 044-201-6701	정지성 사무관 jjs118@korea.kr
2. 산업전환시 일자리 유지 지원				
채용내보조형	① 고용위기 극복 패키지 도입	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	지영철 과장 044-202-7404	송은정 사무관 sejgreat@korea.kr
	② 노사 상생형 산업전환 훈련 및 변화관리 지원	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과	이영진 과장 이재국 과장	김하희 사무관 권보미 사무관
	③ 산업맞춤형 AI 전환 훈련과정 특화센터 확대	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과	박상원 과장 044-202-7307	이동현 사무관 ldh1919@korea.kr
	④ 청년 AI 기술인력 육성 프로그램 확대	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		
3. AI인재와 취약분야 지원 연계				
AX취약분야 지원 강화	① 중소기업 AI 청년코치 지원 신설	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	이영진 과장 044-202-7264	박미연 서기관 050004927@korea.kr
	② 소상공인 대상 AX-DX 컨설턴트 육성 신설	중기부 디지털소상공인과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	추경호 과장 044-204-7870 김범수 과장 044-202-7269	이주창 사무관 ysmt@korea.kr 최어지니 사무관 chidjwsl@korea.kr
	③ 협동조합 AI 전문인력 채용지원 신설	기획처 상생협력전략과	이정윤 과장 044-214-1750	배준혜 사무관 jhae10@korea.kr
취약분야 AI인재 채용지원	① 중소·중견기업 AI훈련 수료 청년 채용 지원	노동부 청년채용기반과	조우규 과장 044-202-7432	임동훈 사무관 idh1202@korea.kr
	② 현장중심형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육성 확대	중기부 인력정책과	김준호 과장 044-204-7440	박현용 사무관 gindragon@korea.kr
	③ 지역성장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개편·확대			오유근 사무관 oukeun@korea.kr
	④ 사회적 기업 AI 전문인력 채용 지원 신설	노동부 사회적기업과	김부경 과장 044-202-7425	박상범 사무관 psbletter@korea.kr
이종량기초성	① AI 분야 플러스+ 국가자격 신설			김주영 사무관 jun143@korea.kr
	② 직무능력은행 제공 정보 확대	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	이재국 과장 044-202-7286	노지우 사무관 rc031811@korea.kr